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주요개정안 마련

학교자치·자율성 보장에 초점... 이달 말까지 각 지역교육청 설명회

도교육청이 2019 전북방과후학교 주요개정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갖는 등 활용방안 안내에 나섰다.

7일 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운영,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정책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재·교구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특히 학교와 교사·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학교 자치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생관리 및 안전지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폭염,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폭설 등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

제한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위탁강사의 경우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질을 평가해 다음 학년도까지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매년 재선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 개인위탁강사는 동일교에서 주14시간까지만 가능하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는 학교 자율로 하되 1강좌당 3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

황 내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증빙서류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 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지원(고용위기지역 해제시까지)도 포함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요개정 내용이 포함된 '2019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길라잡이'를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11월 말까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국제교류원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4박6일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을 방문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

전주대, 우크라이나 주요 대학과 업무협약

전주대 국제교류원(원장 류인평)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4박6일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을 방문했다.

전주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국어의 불 조성의 여건과 유학생 유치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과 연계해 한국어 말하기 회화를 열고 키예프 지역에서 전북지역 3개 대학과 함께 한국 유학생 설명회를 개최했다.

휴일이 포함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찾아와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갈 만큼 호응이 높았다.

전주대 국제교류원 류인평 원장은 “아시아 유학생이 주를 이루는 현 시점에서 유럽 학생들의 유입은 우리 전주대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하림-네덜란드, 농생명 전문가 육성에 모두가 한마음

가금전문가교육센터 개설 합의

전주대 LINC+사업단(주승 단장)은 지난 5일 (주)하림본사에서 네덜란드 AERES그룹 등 세 기관과 국제 가금전문가교육센터(IPEC)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네덜란드 농림부 마르조빈 소네마 차관, 주한 네덜란드 로디 엠브렛 대사, 와게닝겐대학 아르요 국제협력담당관, (주)하림 박길영 대표이사, 전주대 LINC+사업단 주승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네덜란드 농림부 소네마 차관은 “2016년부터 집중해온 네덜란드-하림-전주대학교의 협력 관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기업연계 기술혁신 활동에 깊은 인상



전주대 LINC+사업단이 지난 5일 (주)하림본사에서 네덜란드 AERES그룹 등 세 기관과 국제 가금전문가교육센터(IPEC)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LINC+사업단 주승 단장은 “전주대는 농생명ICT 융합전공, 하림 산학연계전공 등 고도화 전문화 되고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수퍼스타

칼리지 융합전공을 개설하였고,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아르요 로터스 국제협력담당관은 7일 전주대를 방문하여 지난 3월 컨

설립했던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교육 과정을 점검하는 등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2850명 발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7일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북대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5,995명 중 지원자격 심사결과 부적격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들의 1단계 서류평가 결과 2,850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1단계 합격자는 오는 15일 이후 22일 2단계 면접을 거쳐 12월 14일 최초 합격자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은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진행된다.

한편, 수험생들은 면접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면접당일 교복착용은 금지된다.

/장은성 기자

“지덕체 갖춘 도내 최고의 운동부 육성학과로 만들 것”

한일장신대-대만 4개 대학 협약

한일장신대학교(총장 구춘서)와 대만 4개 대학이 양국 체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7일 한일장신대에 따르면 최근 구춘서 총장과 김연수 교수(체육부장) 등이 대만을 방문해 국립카오슝대학교 장영대학, 원동과기대학, 명신과기대학 등 4개 대학과 상호업무협약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에 상호 대학들은 앞으로 △3+1 학생교류 △교직원 교류 △학술정보 교환 △공동 연구프로그램 △공동 문화프로그램 △공동회의 및 워크숍 △스포츠교류 등을 협력하게 된다.

이번 교류로 한일장신대는 야구부와 양궁부의 동계 전지훈련을 이들 대학에서 진행하며 각 종목별 상호



한일장신대학교와 대만 4개 대학이 상호업무협약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교류점을 갖게 된다.

또 내년 1학기부터 대만 대학에 학생들을 파견할 예정이고 대만 대학들도 여름방학에 한일장신대를 방문하게 된다.

김연수 교수는 “학생들을 잘 지도해

지덕체를 갖춘 도내 최고의 운동부 육성학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장신대학교는 야구부, 양궁부에 이어 2019년도에 사격부, 테니스부, 여자하키부 팀을 창단한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대학원에 양자컴퓨터공학과 신설

수업료의 70% 연구 장학금 혜택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 양자컴퓨터공학과를 신설하고, 11월 중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은 국내의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자를 자격으로 모집하며, 신입생 특별장학금과 수업료의 70%인 전일제 연구 장학금 혜택 등이 주어진다.

대학원 과정에 국내 최초로 양자컴퓨팅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원광대는 4학기 동안 양자역학, 양자 정보이론, 양자컴퓨팅 제어, 알고리즘, 응용 등의 교과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양자암호통신,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분야 대기업 및 연구기관 취업을 목표로 학업 및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양자컴퓨터공학 인재 양성의 교두보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학과 신설에 참여한 정성태 교수는 “현재 컴퓨터로는 수백 년이 걸리는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끝내는 성능을 발휘하는 양자컴퓨터는 앞으로 기초학문 분야는 물론 여러 분야의 산업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아직 국내 관련 기술과 연구는 미흡한 단계지만, 대학원 학과 신설을 계기로 양자컴퓨터공학과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학과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IBM과 구글, MS, 인텔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양자컴퓨터공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방대한 계산을 요구하는 기술을 위한 신개념 컴퓨팅 모델로 물리, 공학, 수학 등 기초학문 지식과 전자, 정보, 컴퓨터 공학적 지식이 융합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